

전남 1인·2인가구 63.6%...저출산·고령화 '심각'

전남도, 2019년 사회조사 결과

전남의 1인 가구는 31.4%, 2인 가구도 32.2%에 이르러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민 10명 중 7명은 노후에 부부 둘이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도민의 생활상과 정책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회조사는 지난 9월 4일까지 2주간 22개 시·군 1만9152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구·가족, 사회·복지, 공동체와 사회 참여 등 12개 분야 40개 문항을 조사원이 직접 설문조사했으며, 도민 3만2376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

요한 정책은 '적극적인 기업유치'가 32.4%로, 구직 활동자에게 필요한 정책은 '취업업체 정보 지원'이 36.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경우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27.5%, '임신·출산 지원 확대' 17.1%,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12.1% 순으로 나타났다.

'야간 활동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1.1%로 과거 조사 대비 8.2%p 상승했다. '전남도민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2.4%p 오른 50.9%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전남지역 가구는 2인 가구가 32.2%, 1

인 가구가 31.4%로 나타났고 희망하는 노후 생활 형태는 도민의 70.8%가 '부부 둘이서의 생활'을 원했다.

선호하는 요양 장소는 자택 47.9%, 전원주택 20.6%, 실버타운 15.7%, 요양원 21.8%,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14.2%, '아동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 13.9% 순이었다.

독서를 하는 도민은 55.5%에 달했으며, 연평균 독서량은 3.7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81.4%는 가족과 함께 살며, 이 중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는 부부 사이 32.1%, 부모자녀 20.1%, 형제자매 4.5%였다.

전남지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18.9%,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인 16.6%를 차지했다. 월평균 소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인 24.1%,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인 20.7%였다.

평생교육을 받은 도민 중 가장 많이 참여한 교육은 '직업 및 업무 관련 교육'이 27.0%로 가장 높았고, 향후 받고 싶은 교육은 '스포츠·레저 교육' 18.0%, '문화·교양 교육' 17.5% 순이었다.

도로명 주소 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엔 81.7%가 '활용한다'고 답했다. 그 중 63.5%가 '도로명 주소 활용이 편리하다'고 답했다. 주로 활용하는 분야는 '배송 관련' 43.7%, '길 찾기' 35.0% 순이었다.

SNS를 이용하는 도민은 53.6%로 과거 조사 대비 4.8%p 상승했고, 이용하고 있는 SNS는 '유튜브' 21.7%, '카카오톡' 21.4% 순이었다.

2011년부터 매년 공표된 전라남도 사회지표는 전남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형석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사회조사를 통해 도 및 시·군의 정책 수립 추진 등에 도민 목소리가 반영된다"며 "사회조사에 협조해준 도민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

- '적극적 기업유치' 32.4%
- '야간활동 안전' 51%...8.2% ↑
- '노후는 부부 둘이서' 71%

8.2% 순이었다.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는 '건강증진 서비스' 31.2%,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4만명 운집' 여수 향일암 일몰·일출제 31~1일 펼쳐진다

오동도·자산공원·소호요트장 등 23곳서 분산 일출제



여수 향일암 일몰·일출제가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돌산읍 임포마을 일원에 전국 최고의 일몰·일출 장소로 꼽히는

향일암 해넘이 행사는 31일 오후 5시 금오산 정상에서 시작된다.

올해 마지막 일몰과 함께 우도풍물굿보존회의 사물놀이와 함께 소원성취 기원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주무대에서는 장기자랑, 퀴즈 이벤트, 댄스대회, 향일암 일출가요제, 낭만버스킹 등 탐방객 어울마당이 행사장 분위기를 띄운다.

자정이 다가오면 소원촛불 밝히기와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그 시간 향일암 종각에서 기념 타종이 서른세 번 울리고, 오색불꽃이 밤하늘을 10분간 수놓는다.

불꽃쇼가 끝나면 덕담 퍼레이드와 댄스 파티, 그룹사운드 공연 등 신년 대동 한마당 오전 1시까지 지속된다.

1일 해맞이 행사는 모듬복과 전자 현악 공연으로 향일암을 깨우고, 일출 시각인 오전 7시 36분을 전후에 소망풍선 달기와 신년 시루떡 나눔 행사도 한다.

여수시는 올해 4만여 명이 향일암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교통대책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시는 행사 기간 셔틀버스 14대를 투입해 죽포삼거리부터 향일암 국립공원 주차장까지 운행하고, 1월 1일 향일암을 출발하는 11번 시내버스도 오전 10시까지 버스 요금을 무료로 운행한다. 돌산읍 7개소에 차량 236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했다.

주차장은 △국립공원 △소호 신도로 △대울 평화테마촌 △성두고개 △갓고을센티 △돌산-우두 신도로 △죽포삼거리에 위치해 있다.

오동도, 자산공원, 소호요트장, 돌산공원, 종고산, 구봉산, 무선산 등 읍면동 23개소에서 분산일출제를 개최해 탐방객 출입 현상도 막을 계획이다.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와 힘을 합쳐 안전관리에 나서고, 행사장 주변에 산불진화차량과 구급차량을 배치해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를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 곳곳에 있는 일출 명소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길 바란다"면서 "행사장을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일암일출제와 분산일출제에 관한 정보는 여수시 관광문화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자년' 쥐 관련 지명 전남 25개...주로 섬·해안가 위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를 맞아 전남도의 지명 분석 결과, 쥐와 관련된 지명이 총 25개로 조사됐다.

이는 쥐와 관련된 지명 전국 64개 중 39%(25개)로 가장 많은 규모로, 전남에 이어 전북 9개, 경남 6개, 경북 5개, 대전 3개 순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쥐와 관련된 지명은 25개 가운데 15개(60%)가 섬 또는 해안가에 위치, 서남해안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부터 쥐는 자연재해를 미리 예고해주는 영물로서 해안과 도서지방에서는 뱃길의 안전,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해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됐다.

이름별로 '쥐섬'이라는 지명이 신안 증도면 쥐섬을 비롯해 4개로 가장 많다. 이 밖에도 두 개의 마주보고 있는 섬이 쥐를 닮았다는 신안 지도읍의 '큰쥐섬'과 '작은쥐섬', 이흥 마리 쥐가 모여드는 영광인 나주 봉황면의 '구서고(九鼠庫)' 등이 있다.

여수=김도현 기자

허성은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셨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